



4면

착한 공동체, 무인 나눔터로 기부문화 '활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음 3월 15일) 제25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첫 온라인 개학... 스마트기기 대여

전북교육청, 도내 미보유 학생 총 4035명 지원... 6~14일 대여 마무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온라인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스마트기기 대여에 나섰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기기 대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도내에서는 초

등학교생 2,579명, 중학생 765명, 고등학생 691명 등 총 4,035명의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별 부족수량은 모두 1,361대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내 전체 학교 보유량이 1만2,089대로 스마트기기 대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교육부 지원 2,830대, 민간기여 1,874대도

이미 추가로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일정에 맞춰 6~8일에는 중3·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여하고, 오는 13~14일까지는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대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여 절차는 학교내 보유량과 필요량에 따라 우선 대여하고, 학교 보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학교 여유

수량을 교육지원청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학교간 스마트기기 보유 격차로 인해 스마트기기 부족 학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인근 학교 여유 수량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해결해 나갈 방안이다"면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스마트기기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제작된 투표용지' 4·15 총선을 9일 앞둔 6일 남원시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인쇄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히트

군산시, 전국 첫 자체 개발... 지자체 문의 쇄도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이름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김임준 군산시장은 자체 개발한 공공배달앱의 브랜드 네임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태명 경기도지사와의 대화를 통해 '배달의 명수'라는 군산의 대표브랜드를 전국적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소상공인들의 이름을 함께 분담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 군산시에는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배달의 명수'와 관련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공배달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날

13일 출시한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는 지난 5일까지 20여일 동안 처리한 주문 건수는 모두 6천937건으로 1억6천6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앱에 가입한 군산시민도 첫날 5천138명에서 출발해 지난 5일 현재 2만3천549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출시일 이후 가맹점 신청이 급증하며 입점 준비중인 업체 또한 증가해 군산시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배달의 명수'가 거대한 민간 배달 앱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초반 질주'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

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은 민간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업소당 월평균 25만원 이상을 아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민간의 배달앱에서는 받지 못하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린다.

군산시는 최근 민간 배달 앱이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반발을 사고 있어 '배달의 명수'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를 계기로 '배달의 명수'를 전국 어느 지자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할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가맹점 입점 신청과 소비자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어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전국 어디든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의 앱을 사용하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국에서 연계된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모든 소상공인들이 함께 힘내서 어려운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자가격리 이탈자 '주민신고'로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부과될 듯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지침을 어기고 격리를 벗어난 사례가 주민 신고로 처음 적발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2명이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관련기사 7면)

신고센터를 통해 격리지 이탈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CCTV를 분석해 6분 가량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4월 3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첫 사례이며,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 적발 사례는 총 3건이다.

도는 최근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부터 도와 각 시·

군에 개설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할 것이며, 자가격리자의 이탈 여부 등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4일 동안의 격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격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규정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 비대면 수업 잠정 연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비대면 수업(재택 수업)을 잠정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심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대학 생활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4월 13일 시행할 예정이던 대면수업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연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는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수업의 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모든 교과목에 대해 과제물만으로 이뤄지는 수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3화점 기준으로 주 1시간 이상은 실시한 화상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원들에게 권고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비대면 수업의 안정적 운영과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분부와 단과대학이 TFT를 구성

해 면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실험·실습이나 실기 과목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 합의를 있는 경우 기존처럼 비대면 수업을 운영한다. 다만 수강 인원을 10명으로 나눠 운영 가능한 수업과 체육 등 실의 수업이 가능한 교과목 등에 대해서는 교수와 학생 간 합의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엄격히 적용해 대면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실험·실습·실기 수업 등에 대해서는 대면 보강을 위해 2주간 별도의 보강 기간을 마련한다. 보강은 14주의 학사 일정이 끝나는 6월 29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중간고사 시험 방식 역시 학생과 협의 하에 미 실시, 혹은 과제를 대체,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토록 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